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김훈은 ‘밥벌이의 지겨움’에서 “그러나 우리들의 목표는 끝내 밥벌이가 아니다. 이걸 잊지 말고 또다시 각자 핸드폰을 차고 거리로 나가서 꾸역꾸역 밥을 벌자. 무슨 소리겠는가. 아무 소리 없다.”라고 썼다.

이 말이 새삼 묵직하게 다가오는 것이 이 시대 밥벌이가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 를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아름다운 가치와 의미를 설명 하더라도 결국 밥벌이라는 궁극적인 조건 앞에서는 버티지 못한다. 작가는 이 밥벌이의 어쩔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하지만 밥벌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인간으로서 다른 차원의 삶은 요원해진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한 끼

‘한 끼 줍쇼’ 현대의 정치경제학

줍쇼’라는 프로그램은 우리가 매일 먹고 살아가는 ‘밥’을 소재로 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흥미를 유발한다. 처음에는 현대인의 주거 형태와 생활 방식을 고려할 때 이렇게까지 프로그램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사람들이 낯선 이들에게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1인 가구와 ‘혼밥족’이 트렌드가 되는 사회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행위는 신선한 발상은 되겠지만 지속적이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 끼 줍쇼’는 대박 프로그램이 되었다.

프로그램 구성은 강호동과 이경규라는 대중에게 익숙한 연예인을 고정 출연시켜 매회 새로운 동네에서 새로운 파트너들과 함께 초인종을 눌러 한 끼를 요정하는 것이다. 초반에 선정 지역의 특징을 자연스럽게 소개함으로써 시청자들의 이해와 공감을 끌어내는 것을 볼 수 있다. 목동 아파트촌이나 신림동 고시촌 등이 대표적이다.

이 프로그램은 초인종을 누르는 데서 시작된다. 저녁 시간에 낯선 집의 초인종을 누르는 일은 근래 볼 수 없었던 일

이다.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 시간은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한다.

사실 방문(訪問)은 아름다운 일이다. 방문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서로 친해진다. 서로의 삶의 조건을 알게 되고 나아가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 누군가의 집이나 작업실 등을 방문하는 것은 서로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애정의 표현이며, 나의 시간과 일상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산물이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방문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방문도 원하지 않는다. 서로 방문하는 일이 사라져 버렸다.

‘한 끼 줍쇼’ 프로그램은 트렌드와 의미를 모두 충족시키는 정말 괜찮은 기획이다. 그럼에도 이 프로그램에 다 담지 못한 측면도 있다. ‘한 끼’의 성공을 위해서 수많은 부재와 거절이 있다. 현관문을 열고 낯선 사람을 맞아들이는 이들이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은 타인을 초대할 엄두나 상황을 갖지 못한다.

무엇보다 텔레비전 화면에 보이지 않는 현실은 따로 있다. 저녁 8시가 넘도록 집에 돌아올 수 없는 이들의 삶. 저녁 식사 한 끼가 누군가에게는 일상의 자연스러운 행복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잃어버린 소중한 일상일 수도 있다.

여성학자 김현경은 ‘현대(hospitality)란 타자에게 자리를 주는 행위, 혹은 사회 안에 있는 그의 자리를 인정하는 행위’라면서 “누군가를 환대한다는 것은 그를 이 공간 안으로 들여오게 한다는 것, 그를 향한 적대를 거두어들이고 그에게 접근을 허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한다. 그런 점에서 ‘한 끼 줍쇼’ 프로그램은 현대의 문제와 연결된다. 현대의 주체와 대상, 그리고 인정과 배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잘 보여 준다.

그리고 현대를 통한 밥상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다. 문제는 이 현대의 장에 처음부터 초대받지 못한 이들을 기억하는 일이다. 문을 열지 않거나 문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 무엇보다 생존이라는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이들이야말로 정말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나눠야 할 이들도이다.

우리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커뮤니티 혹은 공동체 담론이 성황을 이루고 있지만, 근간을 이루는 것은 비교적 단순하다. 임마누엘 칸트의 말이다. “지구는 돌글고 그 표면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종교칼럼

잘돼야 할 텐데...



중현
회순 용암사 주지스님

목요일, 저녁 7시 17분. 마당은 승용차로 가득차 있었다. 어림잡아 30여 대 정도. 마당 입구엔 교통정리봉을 든 봉사자인 듯한 사람도 서있었다. 아줌마 서너 명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스틸식 단층 조립 건물로 된 교회를 지나다 본 풍경이다. 들뜬에 행하게 있는 교회다. 용암사는 1년에 서너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다. 부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우리로 저녁에 행사를 하면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올까?. 요즘 세상에 시골 산속까지 누가 찾아오겠어? 그것도 잠깐한 밤중에...’

혼자서 주거나 받거나 속으로 이야기하다가 내가 뭐하나 싶어서 쓴웃음이 나온다. 장사가 안돼서 파리만 날리는 가게 주인이 다른 가게에 손님 많은 걸 보는 기

분이다. 기분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 얼마 전, 열흘이 넘어서야 겨우 주문한 물건을 받았다. 내가 읊내까지 나가서 택배차 지나는 길가에 기다리고 있다가 받아 왔다. 택배 회사 잘못 걸리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 이것이 시골의 현실이다. 쇠락하고 있는 시골에 기생해서, 갈수록 외면당하고 있는 종교에 몸담고 있는 것이 지금 나의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망각한 채, ‘이런 별판에 행하게 서있는 교회는 뭘 먹고 살까?’ 걱정 아닌 걱정을 하던 자신의 순진함에 어이없는 웃음이 나온다.

최근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졌다고 언론에서 제법 크게 기사화된 적 있다. “여자 아이스하키팀 단일화는 북한에 갑질이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급하게 북한에 다가가려 하고 있다.”, “무리한 남북단일팀 추진이 반대한 핑계가 없다. 보수층에게 막이감을 제공했다.”는 등 여러 분석이 나왔다.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진 것이 중요하고 불교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회복했다고 한다. 모든 것이 불교 며칠 사이 나도 모르게 진행된 일이다.

정부의 지지율은 TV프로그램으로 치자면 시청률이다. 광고로 먹고 사는 민영

방송사는 시청률이 곧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시청률이 나쁘면 프로그램이 폐지되기도 한다. 프로그램 제작자들은 시청률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다. 오래된 속담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말이 있다. 시청률을 끌어 올리려면, 쓰디 쓴 약처럼 종긴 하지만 사람들이 꺼리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선 안된다. 시청률 지상주의는 시청자에게 약이 아니라 독이다. 시청률 경쟁이 방송을 망치고 결국 시청자인 사회 구성원들을 어리석게 만들듯, 정치인이 개인의 지지율에 연연하면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이다. 기업의 영업 실적에 기업 경영을 좌지우지하면 기업 윤리나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역할은 뒷전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소비자인 사회 구성원에게 오롯하게 돌아간다. 지지율에 연연하고, 시청률과 영업 실적에 목매는 사회는 스스로를 갇아먹는 구조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만 생각한다면 지금처럼 절을 운영해서는 안된다. 사람들이 찾아오기 편한 곳에, 찾아오기 편한 시간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꾸미고, 관심이걸 만한 내용으로 알맹이를 채워야 한다. 시청률을 의식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피디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한국 불교도 대대적

인 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언제 부처님이 절을 잘 운영하기 위해 고민한 적이 있던가? 사람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연 사찰의 우선적인 과제인가? 의문이 든다.

이런 저런 걱정을 페이스북에 늘어놓으니 지인께서 “부처님이 절을 잘 운영하기 위해 고민한 적은 없었지만, 스님은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게 딜레마 아니겠습니까?”라고 댓글을 달았다. 한국 불교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꼭 꼬집은 재치 있는 댓글 덕분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나는 사찰 관리인 혹은 말사 주지이기 이전에, 부처님의 제자다. 내 능력으로 뛰어난 사찰 경영자, 탁월한 포교사까지 곁할 수는 없다. 부처님의 제자답게 살기에도 바쁘고 힘든 세상이다. 내 능력으로는 이마저도 벼겁다. 지금까지 부처님의 제자로서 그러저럭 굶어죽지 않고 살아왔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제자로 산다고 굶어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뿐이다.

정부의 지지율,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률, 기업의 영업 실적, 시골의 인드수. 이런 것들에 연연해서 ‘잘돼야 할 텐데...’ 하며 무척이고 초조해 하면 될 일도 안 된다. 위기일수록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경영의 기본이다.

인생 황혼기는 고고(孤高)하되, 독(獨)하지 않게

기고



이형만
전남도 노인복지팀장

아직도 ‘엄마’라 부를 수 있어 행복하다. 나이 오십이 넘는 사람이 엄마가 뭐냐며 남들에게 핀잔을 듣기도 하지만, 그래도 필자는 ‘엄마’라는 호칭이 훨씬 정겹고 편하다.

올 겨울은 유난히 추운 날이 많았다. 집에 계신 엄마가 걱정이 돼 밖에 나가시지 말라고 안부 전화를 하면 팔손님으신 올 엄마는 ‘아들아! 추우니까 방 따습게 하고 밥이랑 잘 챙겨먹어라!’며 아들 걱정이 먼저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아들이 좋아하는 고등어조림과 위장에 좋다는 찹밥을 해 놓고서 아들을 기다리신다.

전남은 전체 인구의 21.5%가 노인이자. 2014년에 이미 전국에서 유일하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또, 전체 어르신 40만8000명 가운데 12만8000명이 ‘홀로 가구’를 이루고 있다.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고독사’가 시대의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뉴스를 통해 홀

로 사는 어르신들이 돌아가신지 여러 날이 지나 주검으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간간히 접하게 된다. 여기에 실직·이혼 등으로 가족들과 떨어져 홀로 생활하는 40~50대 중·장년층 고독사 문제까지 가세하고 있다.

현재 독거 노인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생활 실태와 건강 상태에 따라 돌봄대상자를 선정하고, 생활 관리사를 파견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공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 계층은 ‘고독사’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여전히 도움을 손길어 필요 한 실정이다.

전남도는 중앙 정부의 도움 없이 어떻게든 최악의 참담한 상황은 막아보자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난 2016년부터 ‘고독사 지킴이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고독사 지킴이단’은 1인 가구 전수 조사 결과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나 노인 재가 서비스 등 기존의 공적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홀로 사는 어르신과 중·장년층 등 1893명을 대상으로 봉사자와 돌봄 대상자 간 일 대 일 결연을 통해 신변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무보수 자원봉사 활동’이다.

지킴이단은 전남지역 297개 전체 읍면동에서 1640명이 활동하고 있다. 지킴이 단 대부분은 돌봄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부녀회장, 통·리장, 의용소방대장,

종교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분들은 읍면동장 추천과, 공모를 통해 선발된 자원봉사자이다.

지킴이단의 임무는 첫째가 ‘고독사 예방’이며, 두 번째는 ‘고독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조치’다. 지킴이단은 돌봄 대상자를 월 1회 방문, 주 2회 전화를 통한 말벗·친구 역할을 하며 신변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신변 이상자 발견 시에는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에 신속히 알리고, 읍·면·동에서는 이들에게 맞춤형 공적 서비스를 연계해 도움을 주고 있다. 시·군에서는 지킴이단의 자원봉사 실적을 관리하고, 분기별 일제 정비를 통해 돌봄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킴이단을 운영해 신변이상자 발견 신고 14건, 공적 서비스 연계 634 건 등의 성과를 거두는 등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 안전 시스템 구축과 지역 사회 공존체 의식 함양에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겼다.

이제는 정부가 나설 때이다. 현재 정부 차원의 고독사 용어 정의와 통계 관리 등이 전무한 실정이다. 시대 변화에 걸맞게 중앙 정부의 포괄적인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한다. 첫째, 노인 일자리 사업의 확대가 절실하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 들면 네 가지 고통이 따른다. ‘신체적 쇠약’과 ‘경

제적 위축’으로 ‘역할이 없어짐’에 따라 결국은 ‘외로움’에 빠지게 된다. 이 네 가지 고통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당한 일자리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노인일자리 사업 중 ‘노노케어’ 사업에 한해 참여 기준을 완화(현재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60~64세 참여 가능)해야 한다.

둘째, 정부 차원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에서는 관내 1인 가구에 대한 데이터를 필터링해 독거노인 등 고독사 위험군 관리 자료로 활용하면 그 효과와 배가될 것이다.

셋째, 지킴이단에 공익 근무 요원 및 청년 일자리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를 통해 세대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의 노령화에 대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이다.

세상이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정서적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정부 몫이다. 그러나 정부가 모든 일을 다 해낼 수는 없다. 민간 영역에서도 함께 나서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의지만 있으면, 다른 사람을 도움 능력이 있다. 따뜻한 손길 한 번, 위로의 말 한마디가 그 누군가에게는 삶의 버팀목이 될 수도 있다.

社說

5·18 헬기사격 미국 문서로도 처음 확인됐다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이 미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서도 처음 확인됐다. 광주일보가 어제 특종 보도한 자료를 보면 80년 5월 21일 계엄군이 군중을 향해 실제로 헬기에서 사격을 한 것으로 돼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적시돼 있는 문서는 주한 미국대사관이 80년 6월10일 미국 국무부에 전송한 비밀 전문이다.

이 비밀 전문은 현장을 목격한 미국 대사관 정보원이 광주 상황을 정리해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5월 21일자 비밀 전문은 “군중이 해산하지 않으면 헬기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고 실제로 총이 발사됐을 때 엄청난 분노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를 말로 정말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나눠야 할 이들도이다.

우리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 많은 커뮤니티 혹은 공동체 담론이 성황을 이루고 있지만, 근간을 이루는 것은 비교적 단순하다. 임마누엘 칸트의 말이다. “지구는 돌글고 그 표면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도시철도 2호선 더 이상 소모적 논란 없어야

광주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사회 일부에서 논란을 제기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서구 유촌동 차랑기지에서 광주역까지 1단계를 당초 목표한 2023년까지 개통하겠다는 것이다.

윤성현 광주 시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은 이미 시작됐다”며 이런 방침을 확고히 했다. 그는 “지난 2014년 말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원안 추진을 약속한 이후 수차례 토론과 검토를 거쳐 ‘노선 변경 없이 안전성과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일기 내 착공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1년 6개월 동안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거쳐 중앙 정부와 사업비 협의, 1단계 구간 실시설계, 차량 구매 절차까지 진행됐다고 밝혔다. 민선 6기 출범 이후 일부의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철저한 재검토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해 사실상 드러났지만 미국 정부의 공식 문건에서 처음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국 정부 문건으로도 확인된 만큼 이제는 최초 발표 명령자 등 5·18의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해야 한다. 마침 며칠 전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5·18진상규명특별법이 28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진실 부에 전송한 비밀 전문이다.

다만 5·18특별법에 따라 꾸릴 진상조사위원회에 강제 조사권이 부여되지 않아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가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조사를 못한 것도 결국은 강제 조사권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 미국 정부 문서로 헬기 사격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것을 계기로 여야 정치권은 진상조사위원회에 강제 조사권을 부여하는 데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강조한 것이다.

윤 시장은 또한 도시철도 2호선을 둘러싸고 지역 사회에서 수차례 논란이 있었지만 충분한 속의 과정을 거쳐 시민 총의를 모은 만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전명했다.

그러나 ‘일기 내 착공’에 대해서는 한 발짝 물러섰는데 시의회의 권고 등을 반영해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수용하되 원안 추진은 확실한 것이다.

광주 도시철도는 재정 부담 등으로 인해 1호선부터 논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도시 외곽이 확대되면서 시내버스만으로 대중교통 수요를 충족할 수 없고 교통 혼잡 비용도 크게 늘고 있다. 지하철은 교통 약자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대구와 부산 등 대도시들이 도입을 확대하는 이유다. 그동안 충분한 논의를 거친 만큼 이제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미래의 광주’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여름 징역의 더위는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하는 형벌 중의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통역당 사건으로 20년 남게 옥고를 치렀던 고신영복 선생의 ‘여름 징역살이’ 편지 내용 중 일부다.

신영복 선생처럼 장기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이 또 있다. 자신도 모르게 간첩이 되고 독방 징역살이를 14년간 참아 내며 양심의 자유를 얻기 위해 신체적 자유를 포기했던 전 광주트라우마 센터장 강용중 씨다.

그는 1980년 5월 광주항쟁이 일어났을 때 통신고 3학년 학생이었다. 공수부대의 잔혹한 만행을 보고 시위에 참여했다가 어머니께 큰 절 올린 뒤 도청에 들어가 총을 들었다. 최후의 항전에서 살아남은 슬픔과 자책감으로 뒤늦게 전남대 의대에 입학했지만, 안기부가 조작한 1985년 구미 유학생 간첩당 사건으로 체포되어 모친 고문을 받은 뒤 재판정에서야 했다. 당시 재판부는 광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31사단이 오치동에 있다’는 사실이 국가 기밀이라고 했다. 변호사도 없

이 ‘에’ ‘아니오’로만 대답해야 하는 재판에서 말 한마디 제대로 해 보지 못하고 사형 구형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 후 폭력 정권이 그에게 내민 것은 사상전향서였다. 서명하면 풀어 준다 했지만 양심을 지키는 대가로 청춘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냈다. 이렇게 세계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가 된 그는 1999년에야 김대중 대통령 취임 1주년 특사로 풀려났다.

강 씨는 전남대에 복학해 2004년 의사가 됐다. 하지만 거기서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었다. 그의 자유를 잃어맨 건 시정

장살 없는 감옥

관찰법. 법은 그의 모든 일상을 감시했다. 3개월마다 무슨 일을 했는지, 누굴 만났는지 등을 경찰에 신고하도록 요구했다. ‘장살 없는 감옥’ 생활이었다.

그는 또다시 불복종 투쟁을 벌여 지난 21일 마침내 법원으로로부터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다. 기나긴 싸움 끝에 악법의 족쇄를 벗은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온전히 실현시키기 위해 33년의 삶을 바친 그의 고통과 인내 그리고 불굴의 의지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유재관 편집부부장·부국장 jkyou@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안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 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